

기도는 시골 처녀가 황태자 만나듯이 하라

작성일: 2011. 4. 1. (금) 저녁 9:50

작성자: 정명심 목사 (중고등부 중앙교역자)

[자체 금요기도회 때, 이 날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빨리 기도하고 조금 서둘러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평소보다 깊게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생각나는 대로 어설픈게 기도하다가,
'짧게 기도해도 간절하게 하자'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역시 집중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 불이 왔고,
예수님의 사랑의 책망이 들려왔습니다.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적었습니다.]

* 예수님 말씀 *

너, 앞으로 나 이렇게 만나면 안 돼.
왕 만나는데 화끈하게 만나야지.
전심을 다해 만나야지.
어느 안전이라고 그렇게 흐지부지 설렁설렁 만날 것이냐?
내가 한낱 남자도 아니고 너 구원할 메시아야.
그리 대할 것이냐?
내 마음 닫힌다.
정신 차려야 된다.
나는 너희를 구원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너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 그리 대할 것이냐?
너희 운명 나에게 달려있다.
나 없이 너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왜 그리 모르냐.
나 대할 때 그리 대하면 안 된다.
시골 처녀가 황태자 만난 듯이 대하라.
네 평생 만날 수 없는 왕을 대하듯이 하라.
너희와 내가 신랑 신부인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 줄 아느냐?
내 심정 알았으면 이제 그리 대하지 말라.

(정말 애가 타는 사랑의 책망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너무 잘못했다고 눈물로 회개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픈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나를 찾는다.
그 부르는 목적은 다들 다르구나.
어떤 자는 아파서 그 통증을 참기 힘들어서 나를 찾고,
어떤 자는 자신의 짐이 무거워서 나에게 맡기고자 부른다.
어떤 자는 희망으로 나를 찾고,
어떤 자는 그냥 형식으로 부르는구나.
하지만 나 주 예수는 사랑의 귀로 희망을 품고 기대함으로 바라본다.
그 간구함이 나를 진정 사랑해서 부르는 사랑의 부름이기를...
제발 나와 일체되고자 부르는 네 마음의 간절함이기를...

제발, 제발 내 사랑들아,
너희는 나를 무엇으로 보느냐?
너를 살릴 구원자? 하나뿐인 메시아?
아니면 그저 너의 소원을 이루어 줄 심부름꾼으로 여기느냐?
제발 그러지 말라.
나는 아프다. 외롭다.
나는 너의 신랑이자,
네 목숨을 구해 줄 구원자 구세주다.
나는 희망도 소망도 이루어 줄 자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너에게 사랑받고 싶은 신랑이다.

이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선이다.
나는 너의 신랑, 죽음을 불사하고 달려온 네 영혼의 신랑이다.
너를 천국으로 데려갈 신랑이다.
너는 신부, 내 신부! 영원한 신부!
나 너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났고
내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너를 위해 죽음 불사하고
내 너를 위해 사탄과 싸워 너를 지키고 있다.
내 슬픈 마음을 아느냐?
너의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나를...
슬픈 눈물 떨구며 한없이 작아지고 있는 나를
너는 모를 것이야.

내 이 큰 사랑을...
정녕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넌 향한 내 사랑을...

사랑아,
그 간구함이 제발
나를 벗어난 간구함이 아니길 바란다.
너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네 생각으로 꼭 차 있지 않기를 바란다.
기도는 내게 맡기는 것이다.
너의 뜻대로 되지 않게 기도하라.
너는 나를 위해 섭리길 간다고 해 놓고
내 생각대로 살겠다고 해 놓고
왜 일구이언(一口二言)하느냐?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최고의 길이다.
네 생각이 내 생각이 되지 않게 기도하라.
거꾸로, 내 생각이 너의 생각이 되어야 되지 않겠
냐?
그것이 일체다.

나의 일을 하는 자들이여,
나에게 기도로 간구하는 자들이여,
이제는 네 생각을 바꾸라.
나를 중심해서 하고 있는지,
정녕 내 뜻에 너를 맡겼는지,
나 예수를 신뢰하는지,
제발 그 중심이 내가 되게 해 다오.
그때 잘된다. 정녕 잘된다!
나를 믿고 간구하고, 뒤돌아보지 말고 따라오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하지 않았더냐?
너희의 간구함에, 너희의 생활 가운데,
너희의 모든 것을 나 주 예수에 초점 맞추라.
가다가 놓치는 것은
맘과 뜻과 목숨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잃는 법이다.
그것이 돈이든, 물건이든, 사랑이든, 목숨이든
세상 이치가 그렇지 않더냐?

나 주 예수를 너희 삶에 최고로 여겨라.
네 마음 중심에 나를 모셔라.
그래야 내가 그 자리 그대로 있지 않겠느냐?
소중히 여겨라.
나는 너의 삶 가운데 최고로 여겨야 될
보물이다. 선물이다.

다시 만나지 못한다.
이때다. 이때 하자!
이제부터가 기회다.
나를 놓지 말아라.
내 손 닿지 않는 날 온다.
덥석 잡아라!
왜 그걸 못 참아? 이제 곧인데...
마지막 기회다. 후회 마라.
나는 너의 신랑이요, 너의 생명의 구세주!
잊지 말자.
희망으로 만나자.
사랑하노라.
네 마음 지치지 말라.
내가 비타민이다! 힘이다!
나를 가진 자 천국을 가진다.
섭리여, 힘차게 전진하자.
천사장 나팔 소리 기다리자. 그날이 온다.

사랑한다. 끝까지 해!
살롬.